



D-100

끝까지!
너의 속도로!

우리는 종종 어른의 조급함으로 아이들의 시간을 재촉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세상을 걷고 있죠.
수능을 100일 앞둔 수험생들 역시 그 불안한 시간 속에서 묵묵히
‘나를 믿는 법’을 배우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책상 앞에 앉게 하는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끝까지 너만의 속도로 가도 괜찮다"는
담담한 응원 한마디였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힘은 곁에 있는 이들의 기다림 속에서 자랍니다.
작은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의 엉뚱한 상상을 엮어 '인생 발명가'로
키워내는 선생님, 낯선 기술 앞에서 헤매는 아이 곁에서 기꺼이 보폭을 맞춰
걷는 선생님처럼 말입니다. 정답을 강요하는 대신 능숙해질 때까지 내어주는
그 다정한 시간이 아이들을 빛나는 전문가로 이끍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연과 마을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대신 흙과 바다를 뒹굴며 마을 어른들의 눈길 속에서 자라는
남해 아이들의 느릿한 일상에는, 세상을 대하는 다정한 감각이 스며 있습니다.

저마다의 속도로 자라는 아이들이 선불리 길을 잃지 않도록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 복잡한 입시 앞에서도 공교육의 품 안에서
흔들림 없이 미래를 그리도록 밤낮없이 땀 흘리는 노력이 바로 교육의
참된 역할일 겁니다.

혼자 빨리 달리기보다 조금 늦더라도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
경남 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그 홀로서기의
시간을 묵묵히 지지하려 합니다. 이번 호에 담긴 따뜻한 동행의 기록들을
천천히 넘기며 아이들이 그려가는 빛나는 궤적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6년 8월 | 117호

발행일

2026년 8월 1일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권순기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055-278-1784)

기획총괄

홍보담당 사무관 최연희

주무관 김문명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주)큰그림

미래를 꿈꾸다

- 04 **요즘, 아이**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믿는 연습 중입니다
- 08 **요즘, 교육**
벽지 학교에 발명의 즐거움을 심다
부곡초 학포분교장 이도현 선생님
- 12 **요즘, 학교**
생명의 싹을 틔워 미래 산업의 숲을 가꾸다
김해생명과학고
- 16 **즐겁지 아니한家**
남해의 계절이 키운 아이
하준이네 보물섬 생활기

가치를 만나다

- 20 **지금, 경남교육**
경남 대입지도의 최전선
경남대입정보센터
- 24 **진로진학 나침반**
학생부 종합전형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26 **아이 안전**
8월, 더 더워진 여름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요
- 30 **경남교육 체험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재미를 더하다

- 34 **PLAY 경남**
8월의 전시 리스트
- 36 **경남교육 기네스**
경남 최초 교복 혁신 사례
- 38 **힐링필링 교육명소**
바다가 내어준 반짝이는 보물찾기
경남 갯벌 체험 명소

42 학교폭력예방 웹툰

정보를 즐기다

- 44 **우리말 톡톡**
여름휴가 길,
표지판 속 로마자를 읽다
- 46 **마음상담소**
자존감과 자신감 형성(학령기)
- 48 **경남교육 캘린더**
- 50 **도정 소식**
- 52 **독자 이벤트 및 퀴즈**



장래희망

김수환 항공기계 정비사
이혜인 해양생명과학 연구원

장래희망

이채은 건축 디자이너
권총명 항공 승무원



수능 100일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믿는 연습 중입니다.

양산 물금고 3학년 수험생들의 솔직담백 속마음

수능 D-100. 누군가에게는 달력 위의 숫자이고, 누군가에게는 뉴스 속 한 장면이지만 이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다가온다. 매일 이어지는 수업과 자습, 모의고사 성적표와 대학 이름, 그리고 “조금만 더”라는 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시간. 양산 물금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네 학생은 지금 그 시간 한가운데 서 있다. 객실 승무원을 꿈꾸는 총명, 해양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혜인, 건축 디자인을 희망하는 채은, 항공기 정비사를 꿈꾸는 수환. 수능 D-100을 앞두고, 저마다 다른 꿈과 고민을 안고 하루를 버티고 있는 네 명의 학생을 만났다.

수

1	0	0	일	이	라	는	숫	자	앞	에서
---	---	---	---	---	---	---	---	---	---	----

D-100이라는 말 앞에서 아이들의 마음은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다. 실감, 긴장, 부담,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총명 학생은 그 숫자를 듣고서야 수능이 더 이상 선배들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되었음을 느꼈다. 헤인 학생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시험만 치면 해방”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채은 학생은 늘 응원하던 자리에서 어느새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다고 했다. 수환 학생은 6월 모의고사를 치른 뒤에야 마지막 시험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지원 전략, 면접 준비가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오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염두에 둔 학생들에게는 모의고사 성적 하나하나가 마음을 흔든다. D-100은 단순히 날짜를 세는 말이 아니다. 수능, 수시, 진로, 체력, 마음까지 모두 붙들어야 하는 시간이었다.

잠	을	줄	이	고	시	간	을	쫓	개	고
---	---	---	---	---	---	---	---	---	---	---

고3의 하루는 대부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자습을 하고, 석식을 먹은 뒤 야자를 하거나 학원 또는 독서실로 향한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대개 밤 12시를 넘긴다. 하루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오답을 확인하거나 다음 날 공부를 준비한다. 잠드는 시간은 새벽 1시, 2시가 되기 일쑤다. 아이들이 힘들다고 말한 이유도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자고 싶을 때 잘 수 없는 것, 친구와 편하게 밥 한 끼 먹거나 영화 한 편 볼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것. 어른에게는 사소한 휴식이지만, 고3에게는 가장 먼저 미뤄야 하는 일들이다. 채은 학생은 잠이 많은 편인데도 마음 놓고 잘 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했고, 총명 학생은 친구들과 가볍게 놀거나 쉬는 일조차 어려워진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수환 학생은 먼 통학길까지 더해져 하루가 더욱 길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버티게 하는 건 특별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수능이 끝난 뒤 하고 싶은 일들을 떠올리는 작은 상상들이었다.

권총명 “수능이 끝나면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요.”
이재은 “잠 실패 자고, 좋아하는 게임을 실패 하고 싶어요.”
이혜인 “넷플릭스를 정주행하고 싶어요.”
김수환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접 돈을 벌어보고 싶어요.”



수험생 필수품 공개. 수환 군은 에너지드링크, 채은 양은 메모장, 헤인 양은 지압봉, 총명 군은 비타민 영양제를 꼽았다.

단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조금 더 스스로 선택하는 삶.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아이들은 상상으로나마 소소한 일탈(?)을 꿈꾸고 있었다.

불	안	은	조	용	히	오	고
응	원	은	가	까	이	있	다

사실 고3들이 공부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이다. 문제를 틀리면 다시 풀면 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일부터 쉽지 않다. 헤인 학생은 문득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온다고 했다. 친구들과는 “공부 어렵다”, “이번 시험 어떡하지” 하고 웃으며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까지 매번 꺼내놓기는 어렵다. 총명 학생도 고3을 직접 지나보니 선배들을 보며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성적표 한 장에 하루의 기분이 바뀌고, 모의고사 결과 하나에 괜찮던 마음도 금세 기울어진다. 고3의 시간은 문제집 위에서만 흐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서도 매일 작은 시험이 이어지고 있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준 것은 거창한 응원보다 가까운 사람들의 평범한 말이었다.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괜찮다, 조금만 더 힘내자”고 말해주는 부모님, 어려운 문제를 옆에서 같이 풀어주는 친구들, 결과보다 후회 없이 해보라는 말. 멀리 중국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전화 너머로 건네는 “수능 잘 치고 같이 놀자”는 약속도 채은 학생에게는 다시 책상 앞



약하다는 것, 잠이 많다는 것, 때로는 느리다는 것, 때로는 너무 느긋하다는 것. 하지만 그 안에서 강점도 발견하고 있었다. 총명 학생은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가는 힘을, 헤인 학생은 느리더라도 깊이 몰두하는 끈기를, 채은 학생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수환 학생은 조금해하지 않는 여유를 자신의 장점으로 꼽았다.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결국 자신에게 건네는 말과 닮아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달려보자고. 헤인 학생은 지금의 시간을 알을 깨고 나가는 과정에 비유했다.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야 조금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다.

수능 D-100. 네 학생은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을 미뤄두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꿈을 말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오늘의 다짐을 내일 다시 세운다. 어쩌면 고3의 시간은 점수를 만드는 시간만은 아닐 것이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믿는 법을 연습하고,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시간. 남은 100일,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응원보다 이 한마디 일지도 모른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 끝까지, 너의 속도로 가도 괜찮다고.

에 앓을 힘이 된다. 수환 학생에게 오래 남은 말은 조금 달랐다. 시험을 망친 날, 아버지의 “됐다, 집에 와서 밥이나 먹자”라는, 무심한 한마디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마음이 잔뜩 웅크려진 날,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는 말이 오히려 가장 깊은 위로가 된 것이다. 수험생에게 필요한 응원은 때로 더 하라는 재촉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한마디였다. 친구가 건넨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라는 말, 부모님이 보내준 긍정적인 문장, 오래전 읽은 책 속 문장이 아이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고3은 혼자 건디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손잡이가 있다. 부모님의 전화, 친구의 농담, 선생님의 한마디, 집으로 돌아와 먹는 밥 한 끼. 아이들은 그 작은 것들을 붙잡고 다시 하루를 건넌다.

남	은	1	0	0	일		
결	국	나	를	믿	는	일	



남은 100일 동안 아이들이 세운 다짐은 소박했다. 휴대전화 보는 시간을 줄이기, 아침마다 세운 계획을 지키기, 낮잠에 너무 길게 빠지지 않기, 조금 더 침착한 마음을 갖기. 무엇보다 총명 학생은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 않겠다고 했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남은 기간만큼은 자신을 믿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 이 시간을 지나며 자신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다. 체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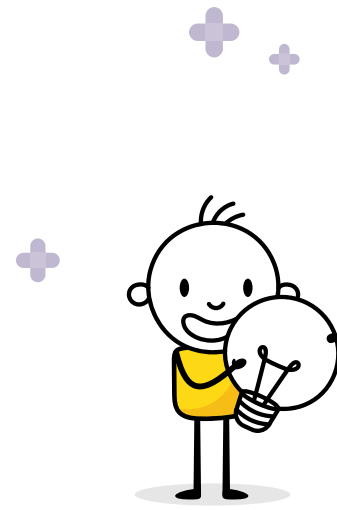


벽지 학교에 발명의 즐거움을 심다

부곡초등학교 학포분교장
이도현 선생님

발명 교육을 위한 시설 기반이 거의 없는 농촌의 작은 학교.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전국 단위의 대회를 휩쓰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여기, 편견을 깨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교실이 있다.

발명 인프라가 전무한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을 이끌고 전국 3대 주요 발명대회를 휩쓸며 교육계 유일하게 제61회 '발명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이도현 선생님의 교실이다. 농촌 벽지의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미래의 체인지메이커로 길러내고 있는 이도현 선생님을 만나 특별하고도 다정한 그의 교육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다.



! 아이들의 마음속 '발명의 씨앗'을 깨내는 광부

이도현 선생님이 아이들과 진심으로 교감하는 선생님의 꿈을 꾸게 된 것은 중학생 시절 본 영화 <선생 김봉두> 덕분이었다. 이후 교대에 진학해 만난 영화 <세 얼간이>의 괴짜 선생님 '란초'는 그의 교육적 롤모델이 되었다. 호기심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일깨우는 란초처럼 이도현 선생님 역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 마음속 숨겨진 이야기를 깨내는 '광부'를 자처한다.

경험이 부족해 발명 주제를 찾기 어려워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 그는 '마이닝 마인즈(Mining Minds, 마음 캐기)' 방식을 활용한다. 소통의 핵심은 아이들이 무심코 던지는 엉뚱한 상상이라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다.

“좋은 발명도 기존의 시선을 바꾸는 작은 일, 이른바 ‘창조적 모방’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이들의 작은 아이디어에 계속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을 나눕니다. 눈을 맞추고 소통하는 시간 속에서 아이들은 발명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스스로 잠재력과 통찰력을 끌어내게 됩니다.”

FEEDDOHYUN



! 혼자가 아닌 '함께',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

물론 처음 교실에서 발명에 관심 있는 학생을 찾았을 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던 막막한 순간도 있었다. 이 선생님은 이 벽을 넘기 위해 '팀 프로젝트 기반'의 발명 수업을 도입했다. 혼자라면 두렵고 포기하기 쉬운 일도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선생님이 든든하게 이끌어주면 어느새 즐거운 도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선생님 스스로의 노력도 남다르다.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발명 수업을 더 재미있게 이끌고 싶은 마음에 과학교육 석사를 거쳐 기술발명 교육 박사과정을 밟고 30여 개의 전문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다.

“아이디어가 없어요'라며 소극적이던 학생이 어느 순간 '선생님, 이런 발명 생각해 봤어요!'라며 눈을 반짝일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대회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자부심을 가지며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제 교직 생활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 '나'를 넘어 '우리'를 위한 인생 발명가

그는 발명 동아리 '꿈빛소금'을 이끌며 '인생발명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동아리 이름에는 아이들이 세상에 꿈과 빛, 소금처럼 꼭 필요한 존재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는 농촌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창의력이 아니라 단지 기회일 뿐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발명을 통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선물하려 한다. 이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인생 발명가'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01



02



03

2025년 부곡초등학교 학포분교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이후에도 그의 교육은 현재 진행형이다. 거제 창호초등학교와 협력하는 'W.I.N.G 프로젝트'를 기획해 지역 상징물과 시 기반 에듀테크를 접목한 생태발명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교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오히려 장점으로 삼아 선생님과 학생이 단순한 사제지간을 넘어 하나의 '교육 공동체'로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발명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나를 위한 발명'을 넘어 '우리를 위한 발명'이라는 따뜻한 가치관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타인의 불편함에 공감하고, 일상 속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며 스스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 농촌 학교에서 쏘아 올린 희망, 미래를 향하다

최근 이도현 선생님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등 주요 발명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 01 아이들에게 발명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수업시간
- 02 전국창업발명경진대회 국회의장상
- 03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최우수상
- 04 발명의 날 국무총리표창



서 역대 최연소 발명 정부포상 수상자이자 전국 유일의 교원포상자로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는 작은 시골 학교 학생들도 올바른 교육과 관심이 뒷받침된다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였다.

'발명대통령 도빈치 선생님'이라는 정겨운 별명을 얻은 그는 학교 밖에서도 농산어촌 발명교육 순회교사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농촌이 단지 지원받는 대상이 아니라 '미래 창의력의 든든한 근원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나가는 이도현 선생님. 아이들의 잠재력을 굳게 믿어주는 그의 든든한 응원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갈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애들아, 발명은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멋진 일이다. 실패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언제나 '왜 이렇게 불편할까? 바꿔볼 수 없을까?'라고 당당하게 질문을 던지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가진 그 작고 따뜻한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좋은 씨앗이 될 거야. 도빈치 선생님이 언제나 너희 곁에서 함께하며 응원할게!”



생명의 싹을 틔워

미래 산업의 숲을 가꾸다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과거 전통적인 농업을 넘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케어, 미래 식품 가공까지, 농·생명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하며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러한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에 최적화된 교육으로 미래 농·생명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곳이 있다.

바로 1927년 개교 이래 '한국농업과 함께한 100년, 함께할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다. 학생의 성장, 선생님과의 동행, 보호자와의 공감기 어우러진 행복한 교육 공동체로서 첨단 농생명과학과 스마트 산업 교육의 산실로 도약하고 있는 김해생명과학고의 생동감 넘치는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휴내음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다채로운 배움터

김해생명과학고는 미래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가장 실용적이고 앞서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케어와 식육 가공 실무를 배우는 '동물자원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이 융합된 최첨단 스마트팜 시설에서 미래형 농업과 조정 디자인을 익히는 '원예조경과', 농기계 운전부터 정비·용접, 산업기계 실무까지 현장 맞춤형 기술을 마스터하는를 마스터하는 '농산업기계과', 그리고 안전한 미래 먹거리 문화를 선도할 제과제빵 및 식품 가공 전문가를 양성하는 '식품가공과'가 그 주역들이다. 아이들은 정규 수업에만 머물지 않고 학과별 전공심화동아리에서 직접 부딪히며 실력을 갈고닦는다. 이처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쌓은 생생한 경험은 훌륭한 결실로도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최근 경남 영농학생축제(FFK) 전공 및 실무 경진 부문을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경남기능경기대회 농업기계정비 직종에서도 전국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특히 '2026년 전국 청년푸드버싱 요리경연대회'에서는 식품가공과 학생들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며 그동안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다려주는 교육'

생소한 기계를 다루고 낯선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이 아이들에게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을 겪는 순간, 김해생명과학고의 선생님들은 다그치는 대신 '기다림'을 택한다. 실패는 틀린 것이 아니라 능숙해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선생님들은 1:1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아이들이 작은 성공을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 한계에 부딪힌 아이들 곁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보폭을 맞춰주는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다정한 기다림 속에서 아이들은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법을 배운다.

스스로 서는 즐거움을 배우는 곳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첨단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정 한편에는 장애 학생들의 자립을 따뜻하게 돕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최근 대대적인 개축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현대적인 실습 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거점학교의 학생들은 단순한 직업 체험을 넘어 교직원에게 직접 음료를 판매하거나 조립한 물품을 실제 업체에 납품하며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워간다. 이처럼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의 표정 역시 눈에 띄게 밝아졌다. 사회에 나가 제 몫을 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이들의 눈빛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다.

내일을 향한 당당한 발걸음, 세상 속 눈부신 전문가로

학교에서의 배움이 온전한 '자립'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김해생명과학고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들과 꾸준히 업무 협약을 맺으며 든든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학년 취업 소양 기초교육부터 3학년 현장실습까지 촘촘하게 짜인 맞춤형 교육은 아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준다. 졸업 후 어엿한 직장인으로 성장해 "선생님, 저 첫 월급 탔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라며 학교로 전해오는 졸업생들의 반가운 연락은 교단에 서는 선생님들에게 가장 깊은 보람이자 무결한 원동력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습실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아이들을 향해 김해생명과학고의 선생님들은 한마음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 "성장의 속도는 저마다 다를지라도, 매일 갈고 닦는 기술과 열정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지켜줄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채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전문가입니다!" 전통의 농업에서 미래의 농생명과학까지, 차가운 기술에 따뜻한 생명 존중의 가치를 불어넣고 있는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이곳에서 단단하게 뿌리내린 아이들의 다채로운 꿈은 머지않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이끄는 든든한 숲으로 자라날 것이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이 융합된 최첨단 스마트팜



학생들이 열심히 키우고 있는 조정 식물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내 바리스타실



반려동물 케어 실습 중인 학생들

남해의 계절이 키운 아이

하준이네
보물섬 생활기



남해군 상주면에는 바다와 마을을 놀이터 삼아 자라는 아이가 있다. 상주초등학교 3학년 하준이, 그리고 그 곁에서 남해의 풍경과 사람을 글로 기록해온 엄마 김보람 씨. 두 사람의 일상에는 작은 학교의 하루,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 마을 어른들의 다정한 인사가 함께 놓여 있다. 남해는 보람 씨에게 천천히 마음을 내어준 생활터전이고, 하준이에게는 태어나 처음 만난 세상이자 고향이다. 자연 속에서 자라는 아이의 시간, 작은 학교의 일상, 그리고 남해를 함께 기록해 온 모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낮선 시골에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로

김보람 씨는 올해로 귀촌 10년 차를 맞았다. 지금은 남해의 매력을 글로 알리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방과 후 영어 강사로도 일하고 있지만, 처음 시골 살이는 쉽지 않았다. 결혼·출산·육아가 한꺼번에 겹쳤고, 마음을 나눌 또래도 가까이에 없었다. 남편은 바빴고, 낮선 마을에서 갓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외롭고 막막했다. 그 시간을 지나오게 한 것은 하준이와 함께한 하루들, 그리고 남해에서 만

난 사람들이었다. 아이가 자라며 생활 반경이 넓어졌고, 마을 사람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졌다. 여행지처럼 낯설던 길은 장을 보러 가는 길이 되고, 산책길이 되고, 학교로 오가는 길이 되었다. 어느새 남해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만큼 이곳의 삶에 익숙해졌다. 남해는 아이가 태어나 자란 곳이자, 가족의 하루가 쌓인 곳, 그리고 보람 씨가 글로 기록하며 다시 바라보는 삶의 터전이 되었다.



바다와 계절이 키운 아이

하준이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자연과 함께 보냈다. 실제 보람 씨는 가정보육을 하는 5년 동안 매일 아침 돛자리와 모래놀이 도구를 챙겨 바다로 나갔다. 하준이는 하루 종일 모래를 만지고 파도를 따라 뛰었고, 해가 질 무렵이면 집에 돌아와 밤에는 잠들 때까지 그림책을 읽었다. 보람 씨는 아이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해주려 애쓰기보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다. 함께 걷고, 함께 놀고, 함께 책을 읽는 일.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하준이의 어린 날은 남해의 계절과 함께 자랐다. 도시의 키즈 카페나 체험 시설 대신, 하준이 곁에는 바다와 논, 산과 마을이 있었다. 봄에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었고, 여름에는 개구리를 잡았다. 가을에는 떨어진 도토리나무를 주우며 놀았고, 겨울에는 추운 시골집 이불 속에서 고구마를 먹으며 책을 읽었다. 밤에 문을 열어두면 개구리 울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들렸다. 보람 씨는 그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5년”이라고 말한다. 그런 시간들 때문일까. 하준이에게도 남해의 자연은 특별한 일상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비가 오는 날이다.

“엄마랑 우비만 입고 나가서
달팽이도 잡고 지렁이도 구경했어요.
빗물이 가득 고인 집 앞 웅덩이에서
옷이 완전히 다 젖을 때까지
신나게 점프하고 놀았는데
정말 재미있어서 아직도 기억나요.”



물론 시골 육아가 늘 낭만적이지만은 않았다. 하준이가 아주 어렸을 때 고열로 쓰러져 비 오는 밤에 옆 도시까지 달려가야 했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그래서 보람 씨는 귀촌을 고민하는 가족들에게 시골의 장점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시골 생활은 유토피아가 아니며, 어디에 살든 장단점은 함께 있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시골이니까 더 여유롭겠지’라는 기대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먼저 살피는 일이라고 말이다.

작은 학교에서 배우는 다정한 관계

하준이는 자신이 다니는 상주초등학교를 무척 좋아한다. 남해에서 태어나 시골 학교만 다녀왔기에 다른 도시 학교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학교생활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다. 학생 수가 많지 않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세심하게 살피주고, 전교생이 서로의 이름을 알고 지낸다. 아프거나 다친 친구가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돕는 따뜻한 분위기 역시 하준이가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체험들이 많아서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상주초등학교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배움이 많다. 학교의 자랑인 생태운동회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직접 재료를 준비해 저녁밥을 짓고 교실에 텐트를 치고 친구·선생님과 함께 잠을 잔다. 바다가 가까워 맨발 걷기, 생존 수영, 서핑 같은 체험도 이어진다. 어린이 농부 활동을 통해 봄에는 모를 심고, 가을에는 추수해떡을 지어 먹기도 한다. 하준이가 남해를 좋아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집 가까이에 논과 바다가 있어 자연이 곧 놀이터가 된다. 날마다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수영하며 물고기와 게를 잡고, 좋아하는 곤충잡기도 마음껏 할 수 있다. 정이 넘치는 마을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손주처럼 간식을 챙겨주기도 한다. 하준이에게 남해는 친구들과 뛰노는 자연 놀이터이자, 자신을 사랑하는 어른들이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하준이의 하루는 이곳에서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다정하게 자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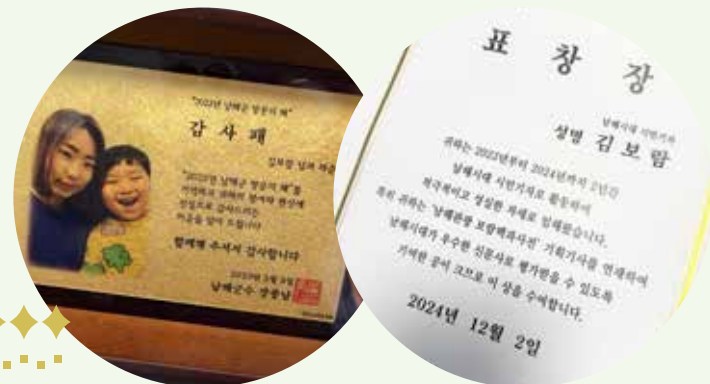
남해를 기록하는 엄마, 남해를 배워가는 아이

보람 씨와 하준이는 한때 ‘하준이와 떠나는 남해투어’라는 글을 연재하며 남해 곳곳을 소개했다. 시작은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였다. 당시 가정 보육 중이던 보람 씨가 홍보 서포터즈로 참여하면서 다섯 살 하준이와 유적지 청소, 캠페인,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함께하게 됐다. 그 모습이 좋은 인상을 남기며 남해군청 공식 SNS에 관광지 홍보 글을 매주 연재하는 일로 이어졌다. 지금도 보람 씨는 지역 신문 시민기자, 경남도청 소식지 남해군 명예기자, KBS 진주 라디오 특파원 등으로 활동하며 남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하준이 역시 어린이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엄마와 함께 지역을 기록하는 경험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람 씨가 남해에서 가장 고맙게 느끼는 것은 계절과 풍경, 그리고 그 안에서 자란 하준이의 마음이다.

“엄마, 사는 게 어쩔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나를 낳아줘서 정말 고마워”

얼마 전 하준이가 했던 말이 보람 씨의 마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부모의 마음이 늘 그렇듯 혹시 부족한 환경에서 키우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아이는 그 안에서 참 밝고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었다. 요즘 하준이는 요리에 빠져 주말 아침이면 볶음밥이나 토스트를 만들어 엄마에게 차려준다. 언젠가는 세계 여행을 떠나기 위해 용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단다.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고, 멋진 사진을 찍고, 여행을 글로 기록하고 싶다는 하준이의 꿈은 그렇게 남해의 작은 마을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바다는 날마다 다른 빛을 보여주고, 마을은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며, 작은 학교는 서로를 살피는 마음을 가르친다. 엄마 보람 씨는 그 곁에서 남해를 기록하고, 하준이는 그 풍경 속에서 자라며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배워간다. 남해의 계절이 키워낸 아이는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다.



막막한 입시의 든든한 나침반, 경남 대입지도의 최전선

경남대입정보센터

해마다 앞치락뒤치락 바뀌는 입시 제도 앞에서 학생과 보호자, 심지어 선생님들조차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모든 정책을 ‘학교 중심’으로 펼치기 위해 밤낮없이 달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 대입지도의 최전선, ‘경남대입정보센터’입니다.

단순히 입시 정보를 모아두는 곳이 아닌 경남 교육공동체 모두가 입시라는 거대한 산을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베이스캠프 역할을 자처하는 이곳의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대입정보센터’가 필요했을까?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보 격차 해소



경남대입정보센터가 처음 창원에 문을 연 것은 2016년입니다. 왜 교육청 산하에 이런 전문 센터가 필요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입시 제도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수능 중심의 획일적인 입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역량과 성장 과정을 평가하는 ‘학생부 전형’ 시대로 대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도 고교학점제 도입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수능 개편 등 굵직한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지만 역설적으로 개별 주체 간의 ‘정보 격차’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급변하는 제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변화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생과 양육자가 학교와 상호협력할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놓기 위해 경남대입정보센터가 탄생한 것입니다.

입시 제도 변화의 키워드



학생부 전형 확대
잠재역량과 성장 과정 평가



고교학점제 도입
학생 맞춤형 교육 기반



수능 개편 & 교육과정 변화
새로운 평가 체계 정착

센터는 어떤 ‘효과’를 만들고 있나? 교사의 성장이 곧 학생의 경쟁력으로!



경남대입정보센터의 가장 깊은 고민은 “입시 준비의 출발은 학교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라는 명제에서 출발합니다. 즉, 학교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센터는 단순히 학생에게 정답을 쥐여주는 대신 학생을 이끄는 현장 교사들의 진학 지도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01 교사들의 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1~3학년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연 3회 연수를 진행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입 전략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또한, 진학 지도 경험이 부족한 현장 교사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도란도란 진학 공부방'과 '월간 진학'을 열어 대입 지도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밀착 지원합니다.



02 대입 정보 분석자료 개발 및 보급

각 학교의 수시모집 지원 사례를 모은 '수시지원 사례집', 생생한 '면접 자료집',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전형분석 자료집' 등을 매년 개발하여 보급합니다.



수시 지원 사례집



면접 자료집



핵심 전형분석 자료집

03 현장 지원 전문위원단 운영

진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50명의 교사로 구성된 '대학진학전문위원단'과 114명으로 구성된 '수능문항출제위원단'을 조직하여 이들이 직접 상담, 컨설팅, 연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현장과 공유합니다.

대학진학전문위원단 50명
수능문항출제위원단 114명

이러한 노력은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교육의 품 안에서 최상급의 진학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학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학생과 양육자를 위한 촘촘한 밀착 지원



대입정보센터의 역할은 고등학교 3학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센터는 진학을 하나의 '종합선물세트'로 바라보고, 중학교 3학년부터 고교학점제 세대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지원을 펼칩니다.



상시 방문 상담

센터에서 근무하는 파견 교사 및 전문위원단은 상시 방문 상담은 물론, 온라인 상담, 그리고 직장인 양육자를 배려한 야간 상담(고3, 고1·2, 중3 대상)을 통해 연간 3,000명 이상의 학생과 양육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대입정보센터 누리집

대입정보센터 누리집인 '모든(jinhak.gne.go.kr)'을 통해 상시로 대입 전형 안내 및 진학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대입 정보 제공

학생, 양육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입시 정보 자료는 물론, 전형별·학과별 분석 보고서와 대학별 설명회 정보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앞으로의 경남 대입 지원, 어떻게 진화할까?



경남대입정보센터는 현재 창원(2016년 개소)과 진주에 위치한 서부대입정보센터(2021년 개소), 김해에 위치한 동부대입정보센터(2025년 개소)로 운영하며 촘촘한 지역 밀착형 진학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입 정보 분석과 자료 생산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미래 교육 환경에 발맞춰 'AI 기반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는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대입정보센터는 이러한 든든한 지원망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청춘이 입시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주며 변화를 이끌어갈 경남대입정보센터의 내일을 기대해 주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한 걸음 더 나아가기



#01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대학마다 다른 이유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도 대학에 따라 세부 평가 요소 및 반영 방식이 각각 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마다 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더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한 전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대학 내에서도 전형을 잘게 쪼개어 평가 요소와 비중에 차이를 두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대학들에서 서류형과 면접형을 나누어 선발하는 경우 서류형은 학업 역량의 비중을 높게 반영하여 학업 능력이 탄탄한 학생을 선발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면접형은 진로 역량에 대한 비중을 더 높게 평가하여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학별 종합전형의 특징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나에게 맞는 대학별 전형 찾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의 대학에서 세 가지 축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진로 역량을 잠재 역량, 자기 계발 역량, 성장 가능성, 전공 적합성 등으로 변형하여 평가합니다. 맥락은 유사하지만, 대학별로 세부 평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학생부를 가장 잘 평가해줄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은 진로 역량을 평가 요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목표 없이 고등학교 생활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강대의 성장 가능성에는 자기 주도성, 교과 이수 과정과 성취도, 경험에 대한 개방성, 목표에 대한 지속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명칭은 다르더라도 진로와 관련된 역량은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수시 원서 접수일은 9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효과적인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대학에 따라 평가 요소가 다르기도 하며 같은 대학 내의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서도 평가 요소의 반영 비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대학별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 등을 살펴봄에 본인에게 맞는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을 살펴보면 역시 대학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 국립대학인 경상국립대와 국립창원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상국립대의 경우 지식탐구역량 45%, 진로역량 25%, 자기주도역량 20%, 공동체 역량 1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하지만 국립창원대학교의 경우 학업역량 30%, 진로역량 50%, 공동체 역량 2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상대적으로 창원대의 진로역량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렇듯 전형요소 간 반영 비율의 차이점들로 인해 한 학생이 두 대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진로 관련 교과목 이수가 탄탄하고 학생부에 진로관련 탐구활동이 충실하게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창원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대학 내에서도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표적으로 CAU융합형인재와 CAU탐구형인재가 있습니다. 두 전형 모두 학업역량과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통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하지만 CAU융합형인재는 학업역량 50%+진로역량30%+공동체역량20%로 평가하며 CAU탐구형인재의 경우 학업역량40%+진로역량50%+공동체역량1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에서도 융합형 인재의 경우 학업 성취도에 좀 더 평가의 주안점을 두고 탐구형 인재의 경우 탐구력에 더 주안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런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의 차이로 인해 합격선 역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AU탐구형 인재의 합격선이 CAU융합형 인재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진로역량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과 성적을 뒤엎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03

마무리

이렇듯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별로, 전형별로 같은 듯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보다 자신에게 맞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대학과 전형을 찾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전형 방법을 꼼꼼하게 숙지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8월, 더 더워진 여름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요!



오늘도 정말 덥다!
여름이 되면 누구나 한 번 쯤 하는 말입니다.
시원한 수박과 물놀이가 떠오르는 계절이지만,
최근 여름은 예전보다 훨씬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은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오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더위가 아닌
함께 대비해야 할 자연재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폭염이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는 학생과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폭염, 얼마나 위험할까요?

폭염, 아는 것이 생존입니다!

'폭염'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폭염은 매우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름철 위험은 단순히 기온이 높아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마르지 않아 몸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33℃라도 어떤 날은 견딜 만하고, 어떤 날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덥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낸 것이 바로 체감온도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폭염특보를 발표할 때 체감온도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더욱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체감온도 퀴즈

다음 중 더 덥게 느껴지는 날은 언제일까요?

- ① 기온 33℃, 습도 40%
- ② 기온 33℃, 습도 80%

정답은 ②번

이것만 기억해요!

- 폭염은 자연재난
- 기준은 체감온도
- 습도가 높을수록 위험 증가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요!

학교에는 누가 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누가 일하고 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학교에는 선생님뿐 아니라 행정실 직원, 시설관리 직원, 조리원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은 학교 곳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행정실 직원



시설관리 직원



운전원



청소원



배움터지킴이



조리원

학교에서 가장 더운 곳은?

여름철 학교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는 급식실입니다.
조리원들은 뜨거운 조리기구와 수증기 속에서 급식을 만들기 때문에 여름철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를 제공하고,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한 여름은 학교의 노력과 함께 스스로 예방수칙을 실천할 때 완성됩니다.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준수

- 시원한 물을 자주 마세요
- 냉방장치를 적극 활용해요
-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쉬어요
- 냉각스카프·냉각조끼 등 보냉장구를 착용해요
-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알리고 119에 신고해요

더운 날씨에는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위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아봐요!

온열질환,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더운 곳에 오래 있으면 온열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온열질환이 의심되면 주변 어른에게 바로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열경련



주요 증상

- 근육경련
- 땀을 많이 흘림
- 일시적인 통증

열탈진



주요 증상

- 피로감, 무기력
- 어지러움, 두통
- 메스꺼움, 구토
- 과도한 땀

열사병



주요 증상

- 고체온(체온 40℃ 이상)
- 의식 저하, 혼수
- 피부가 뜨겁고 건조
- 빠른 맥박, 호흡

응급조치 방법도 알아두세요!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도와주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고,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함께 만드는 안전한 여름 학교

온열질환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휴게공간과 보냉장구를 마련하는 등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듭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은 곧 우리 모두의 안전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욱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요!



온열질환 예방 교육

휴게공간 마련

보냉장구 준비

예방수칙 점검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여름!

학교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배려할 때,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흔히 '기록원'이라고 하면 오래되고 딱딱한 행정 문서를 겹겹이 쌓아둔 정적인 보관소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여기, 우리의 고정관념을 기본 좋게 깨뜨리는 조금 다른 곳이 있다. 바로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이다. 이곳은 교실에서 웃고 배우던 아이들의 생생한 모습과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과정이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경남교육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하며 내일의 교육을 준비하는 특별한 교육 전문 기록문화기관. 이곳에서 기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는 문채경 기록연구사를 만나 기록이 품은 따뜻한 이야기와 체험 공간으로서의 매력을 들어보았다.

종이 너머, 학교의 '삶'을 엮어내는 공간

"기록원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은 종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보존하는 일을 넘어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든든한 토대이지요."

문채경 연구사의 말처럼 이곳은 단순한 자료실이 아닌 생동감 넘치는 기억의 저장소다. 공공기록물이 교육정책과 학교문화의 변화라는 '역사'를 보여준다면 이곳에 정성스레 모인 개인이 간직해 온 일기장, 필기 노트, 옛 교복과 같은 민간 기록물은 그 시대를 살아간 학생들의 '삶'을 진솔하게 보여준다. 특히 졸업앨범에 담긴 교실 풍경이나 소풍을 앞둔 설렘이 적힌 일기장은 누군가에게는 개인의 추억이지만 후대에는 그 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생생한 교육 자료가 된다.

사람들의 이야기



기억이 머물고 세대가 공감하는

교육의 발자취

종이 너머 사람의 이야기를 품다,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그렇다면 이 수많은 기록물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모든 문서가 무조건 영구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중요 공공기록물이 보관되면 훼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뒤 복원과 소독 및 탈산 처리를 거친다. 이후 향온·향습이 유지되는 보존서고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며,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원본 보존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디지털 세대 아이들에게 '시간'의 가치를 가르치다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에 둘러싸여 '기록'을 쉽게 만들고 지우는 데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 기록원의 아날로그 기록물은 특별한 울림을 전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커져이 쌓인 '시간의 무게'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나 낡은 공책을 직접 마주하며 아이들은 "이 기록이 수십 년 동안 누군가의 손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왔구나"라는 시간의 무게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나아가 훼손된 기록을 하나하나 복원하고 안정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록이란 남기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온몸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다.

세대를 잇는 마법, 그리고 생생한 '기록 체험터'

이러한 기록의 힘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기도 한다. 기록원을 찾는 관람객들이 가장 오래 발걸음을 멈추는 곳은 다름 아닌 '오래된 학교 사진' 앞이다. 첨성대 위에 올라가 찍은 경주 소풍 사진이나, 한 교실에 빼곡히 모여 앉은 옛 수업 풍경은 세대 간의 즐거운 대화를 이끌어낸다. 부모님 세대는 "우리 땀 저랬어"라며 추억에 젖고, 학생들은 "예전엔 이렇게 달랐어요?"라며 신기해한다. 기록이 서로 다



른 세대의 기억을 나누고 공감하게 만드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는 순간이다.

이 같은 감동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현재 기록원에서는 경남교육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설·기획전시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보존서고와 복원 시설을 직접 둘러볼 수 있어 흥미를 더한다.

이에 더해 본격적인 2학기부터는 학생 대상 단체 견학을 통해 학교 교육과 연계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교원 자문위원회와 함께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기', '우리 학교 기록지도 만들기', '학급 타임캡슐 제작' 등 아이들이 스스로 기록을 남기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성인을 위한 자서전 쓰기와 가족 아카이브 만들기 등도 계획되어 있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열린 체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기록을 넘어 교실로, 그리고 미래로

놀라운 점은 기록원의 발걸음이 서고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록원의 자료는 단순히 전시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학교 수업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국어 시간의 인터뷰 쓰기, 미술 시간의 옛 사진 창작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교 역사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록원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활동지와 디지털 교육자료를 제공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학교를 스스로 기록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점차 디지털화되는 교육 현장의 모습을 미래에 온전히 전하기 위한 고민도 깊다. 공식 문서뿐만 아니라 학교 축제, 동아리 활동 등 교실의 입체적인 일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을 수집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기록원의 중요한 과제다.

"오늘의 일상은 내일의 기록이 되고, 우리의 기록은 경남교육의 역사가 됩니다. 다가오는 방학, 가족과 함께 기록원을 찾아 부모님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보관하는 곳을 넘어, 누구나 찾아와 배우고 추억을 나누는 복합문화공간이자 든든한 배움터가 되는 곳. 울여름,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역사가 되는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으로 의미 있는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한여름, 하루를 채우는 예술 산책

8월의 전시 리스트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8월,
불쾌지수를 산뜻하게 날려버릴 피서지로
미술관 나들이는 어떨까.

이번 달 경남 곳곳에서는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하는
미디어아트부터 격동의 근현대사를
묵묵히 걸어온 거장들의 치열한
삶의 궤적을 엿볼 수 있는 전시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지친 일상에 기분 좋은 쉼표가 되어줄
8월의 주목할 만한 전시 세 편을 소개한다.



미래의 지구를 마주하는 실감형 미디어아트,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카본 클럭 Carbon Clock〉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손잡고 특별한 미디어아트 전시 〈카본 클럭〉을 선보인다. 탄소 배출과 기후 위기라는 화두를 던지는 이 전시는 인간의 선택이 미래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가상 세계의 이미지로 생생하게 구현해 낸다. 현실에서의 50년을 단 5분으로 압축한 영상을 통해 관람객은 눈앞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지구의 모습을 한층 더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증강현실(AR) 기반의 참여형 원작을 5면 실감형 콘텐츠 환경으로 새롭게 재구성해 관람객에게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한다. 여기에 국가유산청이 제작한 ‘궁궐정원’과 ‘별서정원’ 실감 콘텐츠도 교차 상영된다. 긴장감 넘치는 기후 위기의 현장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관계 맺던 전통 정원을 거닐며 사유와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출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X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기간: 2026년 4월 17일 ~ 11월 29일
장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큐빅하우스 4갤러리



우주와 대지를 품은 거장의 궤적,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가장 자유로운 길〉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상설전시관으로 걸음을 옮기면 이성자 화백의 예술적 변천과 사유의 확장을 한눈에 조명하는 전시 〈가장 자유로운 길〉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한국에서 유년기를 보낸 후 프랑스로 이주해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이 화백은 동양적인 사유를 서구의 추상회화 틀 안에 조화롭게 녹여낸 거장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전시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억의 문’, ‘세계를 향한 발걸음’, ‘우주에 이르는 길’ 등 총 세 가지 섹션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 한국적 정서와 신화적 기억이 짙게 투영된 초기작을 시작으로 대지와 우주의 합일을 지향한 후기작에 이르기까지 작가가 평생에 걸쳐 탐구해 온 예술적 여정을 찬찬히 따라가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곳곳에 마련된 다채로운 전시들이 관람객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기간: 2026년 3월 4일 ~ 11월 8일
장소: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상설전시실

삶이 곧 예술이었던 조각가의 연보,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Moon Shin Chronology〉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근현대의 격동기 속에서도 예술가의 길로 들어선 문신의 강렬한 생애를 되짚어본다. 1922년 일본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고향인 마산에서 유년기를 보낸 그는 1961년 프랑스로 건너가 본격적인 추상과 조각의 세계에 몸을 던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원과 선이라는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좌우 균제(Symmetry)의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유롭고 독창적인 형상을 창조해낸 작품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오직 예술을 위해 자신을 남김없이 불태웠던 한 거장의 치열하고도 숭고한 삶의 궤적이 깊은 울림을 전한다.

출처: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기간: 2025년 4월 22일 ~ 2026년 8월 30일
장소: 문신미술관 원형전시관1



경남 최초 교복 혁신 사례

교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학교 문화를 담은 얼굴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편안함과 자율성을 더한 교복.

경남 최초의 교복 혁신 사례를 통해

학교가 만들어 온 변화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최초 반바지 여름교복 선정 학교

창원중학교. 2013년

창원중학교는 경남 최초로 7부 바지 여름교복을 도입한 학교이다. 2013년 5월부터 학생들은 교칙 개정을 통해 긴 바지와 7부 바지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무더운 여름 긴 바지를 접어 입던 학생들의 불편함을 반영해 학생과 양육자의 의견으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긴 바지를 수선해 활용하도록 해 비용 부담도 줄였다. 이 제도는 학생의 자율성과 의견을 학교 제도에 반영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통영 충무중학교. 2013년

통영 충무중학교는 2013년 6월 12일부터 반바지 교복을 착용하기 시작했다. 2013년 창원의 창원중학교가 7부 바지나 긴바지를 자유선택 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반바지가 여름 교복으로 허용된 것은 경남에서 처음이었다. 학생,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 착용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바꿨다.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 하복 바지를 고쳐서 활용토록 하고 반바지 착용을 의무는 아닌 자율 의사에 맡겼다.



최초로 생활한복 교복 선정 학교

진주 삼현여자고등학교

진주 삼현여자고등학교는 생활한복을 교복으로 지정하고자 1997년 '교복선정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98년 신입생부터는 생활한복을 입고 등교하였다. 1997년 삼현여자고등학교의 최문석 교장은 한 여선생님이 착용한 생활한복을 보고 "우리의 전통한복도 훌륭한 교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며 생활한복을 교복으로 지정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이후 학생, 양육자, 교원 등은 '교복선정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생활한복이 교복으로 가능하지 조사하고, 수차례 공청회와 '생활한복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였다. 특히 교복 선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혀 원하는 색깔을 골라 입을 수 있도록 하여 획일성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98년 1학년생 전원이 전국에서는 최초로 전통 생활한복을 교복으로 지정해 등교하며 우리의 전통 멋을 뽐내고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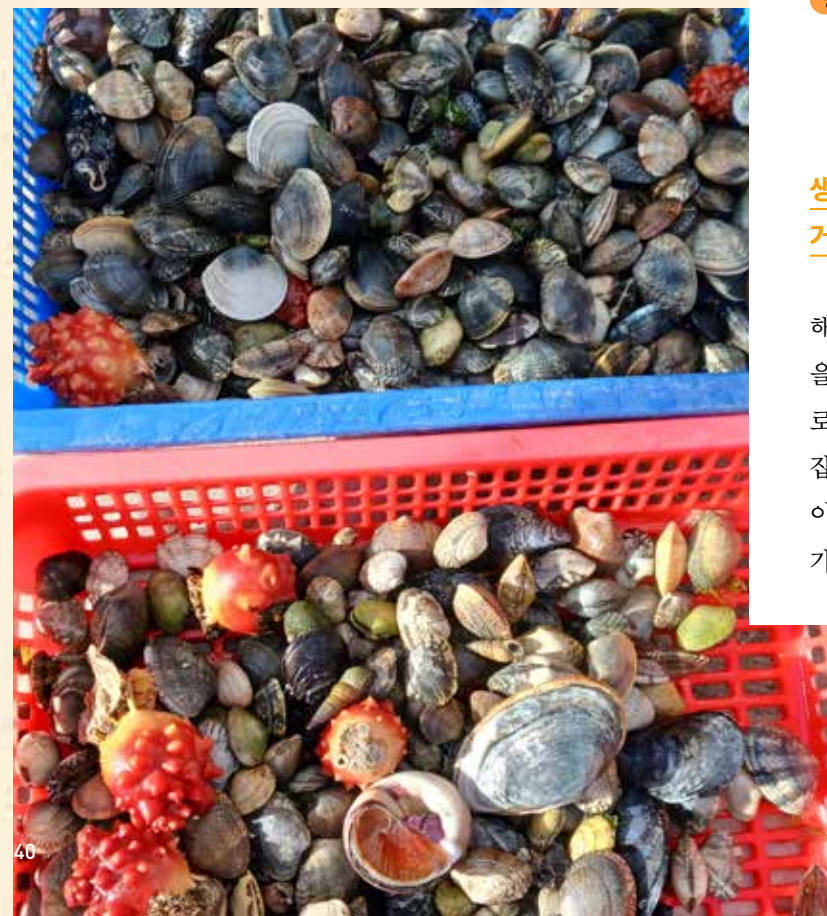


바다가 내어준 반짝이는 보물찾기

경남 갯벌 체험 명소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바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는 '갯벌'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썰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끝없이 펼쳐지는 갯벌은 생명력이 꿈틀대는 거대한 자연 생태 교실이자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휴장난을 허락하는 최고의 천연 놀이터다. 호미 한 자루와 장화만 있으면 누구나 숨은 보물을 캐 수 있는 경남의 다채로운 갯벌 체험 명소 3곳을 만나보자.

TONGYEONG — NAMHAEE — GEOJE



소박하고 평화로운 바다의 품, 통영 궁항어촌체험휴양마을

화려하고 북적이는 관광지에서 한 걸음 벗어나
한적하고 여유로운 어촌의 정취를 느끼고 싶
다면 통영 산양읍에 위치한 ‘궁항어촌체험휴양
마을’로 떠나보자. 잔잔한 파도와 아름다운 해
안선이 어우러진 이곳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오붓하게 갯벌 체험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숨
은 명소다. 물이 빠지고 바닷길이 열리면, 장화
를 신고 호미를 쥔 아이들의 본격적인 바지락
캐기가 시작된다. 부드러운 빨과 모래가 적절
히 섞여 있어 초보자나 어린아이들도 크게 힘
들이지 않고 갯벌의 촉감을 즐길 수 있다. 호미
로 살살 흙을 긁어낼 때마다 오동통한 바지락
과 작은 게들이 모습을 드러내면 아이들의 입
에서는 신나는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바구니
를 하나둘 채워가는 성취감은 물론 고즈넉한
바다 풍경이 주는 마음의 평화까지 함께 담아
갈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다.

장소 경남 통영시 산양읍 궁항길 46-8
궁항어촌체험휴양마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거대한 천연 놀이터, 거제 다대갯벌체험마을

해양스포츠와 함께 거제도 유일의 갯벌체험장
을 경험하고 싶다면 거제 ‘다대갯벌체험마을’
로 향해보자. 거제 남부면의 청정 해역에 자리
잡은 이곳은 드넓게 펼쳐진 갯벌의 규모와 다
이내믹한 해양 체험 프로그램으로 매년 수많은
가족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다대갯벌은 질척이는 진흙보다는 단단한 모래
갯벌에 가까워 발이 푹푹 빠지지 않아 아이들
이 맘껏 뛰어놀기에 좋다. 남해안의 기암괴석
과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풍성
하게 마련된 해양 액티비티는 여행의 즐거움
을 한층 끌어올린다. 잔잔한 파도를 가르며 해
양스포츠부터 여유로운 바다 산책까지 자연과
액티비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온
가족을 위한 최고의 해양 놀이터다.

장소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대1길 6

붓으로 낚는 짜릿한 손맛, 남해 둔촌갯벌체험장

남해의 눈부신 풍광을 품은 ‘둔촌갯벌체험장’
은 주민들의 애정이 듬뿍 담긴 생태 놀이터다.
입구에 들어서면 주민들이 버려진 페트병을
오려 대나무에 매단 500m의 정겨운 ‘바람개
비 길’이 방문객을 반긴다. 이곳의 백미는 단연
‘썩’ 잡기다. 갯벌 구멍에 된장을 바른 붓을 살
살 밀어 넣고 밀당하듯 천천히 끌어올리면 붓
을 짹 썩이 딸려 나온다. 남너노소 푹 빠져
드는 짜릿한 손맛은 물론, 직접 잡은 썩을 즉
석에서 바삭한 튀김으로 맛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진다. 훌륭한 생태 조건 덕분에 굵직한 바
지락과 우럭조개를 캐는 재미도 쏠쏠하다. 깨
끗한 자연과 다정한 인심이 어우러진 둔촌마
을에서 잊지 못할 갯벌의 추억을 남겨보자.

장소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492
둔촌갯벌체험장



WEBTOON
학교폭력예방 웹툰

사고팔 수 없는 것 7화

- 글: 그림 지유나 -



“ 누구 하나라도 괴롭힘당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여름휴가 길, 표지판 속 로마자를 읽다



8월의 여름방학, 아이들을 뒷자리에 태우고 가족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도 아이들은 그저 신이 난 모양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아이가 도로 표지판을 가리키며 불쑥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저기 '한강'은 Hangang이라고 적혀 있는데, 영어책에서는 Han River라고 하잖아.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야?"

운전대를 잡은 손이 잠시 멈춥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도로 표지판의 영어 표기. 아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국어 교사의 뇌세포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니 참 흥미롭습니다. 도로 표지판에는 Hangang, Namsan, Seoraksan처럼 우리말을 로마자로 옮겨 적은 이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관광 안내서나 해외 뉴스에서는 Han River, Namsan Mountain처럼 영어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데도 표기가 달라 보이니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도로 표지판과 안내문, 그리고 인터넷 속에는 이처럼 알면 알수록 흥미롭고, 때로는 헷갈리는 로마자 표기와 외래어 표기의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휴가 길 차 안에서 나누기 딱 좋은 우리말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엄마, 저기 '한강'은 Hangang이라고 적혀 있는데, 영어책에서는 Han River라고 하잖아.



우리말 돋보기

도로 표지판과 관광 안내서, 무엇이 다를까?

◆ 1. 'Hangang'과 'Han River', 둘 다 맞습니다. 로마자 표기와 영어 번역의 차이

- **도로 표지판 (Hangang)** 도로 표지판에 적힌 알파벳은 영어 번역이 아니라 우리말 발음을 그대로 옮겨 적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이 표지판에 적힌 지명을 그대로 읽거나 검색하고 한국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유명사와 행정구역 이름은 발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광 안내서 (Han River)** 관광 안내서나 해외 기사, 영어로 작성된 안내문에서는 외국인이 장소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Han River, Namsan Mountain처럼 '강(River)', '산(Mountain)'과 같은 지형의 이름을 영어로 풀어 쓰기도 합니다. 즉, Hangang은 우리말 이름을 로마자로 옮긴 것이고 Han River는 영어식으로 번역한 이름인 셈입니다.

◆ 2. 휴게소 간식으로 배우는 외래어 표기법

휴가 길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휴게소 간식입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못 적힌 외래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캐러멜(O), 카라멜(X)**: 입안을 달콤하게 해주는 간식은 '캐러멜'이 바른 표기입니다.
- **케첩(O), 케찹(X)**: 감자튀김에 곁들이는 소스는 '케첩'이 맞습니다.
- **뷔페(O), 부페(X)**: 여러 음식을 골라 먹는 식당은 '뷔페'가 올바른 표기법입니다.
- **도넛(O), 도나츠(X)**: 일본식 발음의 잔재가 남은 '도나츠' 대신 '도넛'으로 적어야 정확합니다.

아이와 도란도란 표지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도로 표지판의 로마자는 우리나라를 찾은 사람들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약속이고,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지켜 나가는 언어의 약속입니다. 이번 여름휴가에는 스마트폰 화면 대신 차창 밖 표지판과 휴게소 메뉴판을 아이와 함께 천천히 읽어 보세요. 무심코 지나쳤던 글자 하나에도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우리말의 질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여행의 설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글: 홍수진
호암중학교 국어 선생님



자존감과 자신감 형성 (학령기)



이달의
상담 주제

아이가 작은 실패에도 쉽게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양육자는 어떤 말과 태도로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요?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님 이 시기 자녀가 작은 실패에도 쉽게 자신감을 잃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자녀를 마주할 때 양육자님들은 마음이 어려우시지요? 이런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성취와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래 또는 어른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고 자기비판을 긍정적 분위기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양육자의 역할은 아이가 실패와 실수를 '성장 과정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에 집중하도록 돕는 일일 것입니다.

첫째는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양육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패했으니 끝"이라는 인식을 넘어, "실패도 해볼 좋은 기회야", "실수했지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아"라고 알려주시면 아이의 자아상에 긍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노력, 과정, 시도에 중점을 두며 결과 중심의 칭찬보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포기하지 않고 시도했다는 점이 얼마나 멋진지" 과정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아이의 부정적 자기평가에 대처하는 양육자의 말은 중요합니다. "속상했겠다. 네가 힘들었겠구나." 먼저 감정 자체를 공감해 주고, 너무 빨리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라고 긍정적으로만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말합니다. "실수했지만 넌 그걸로 가치가 낮아지는 게 절대 아니야. 누구든 실수할 수 있어." '실패는 나쁘다'라는 등식을 깨 주는 양육자의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상적이기보다 "넌

발표 때 목소리가 또렷해서 참 좋아.", "이번에는 결과가 아쉬웠지만, 준비했던 자세는 정말 멋졌어."라고 구체적으로 장점을 짚어주고, "됐어", "안 해!" 등 좌절하는 모습의 자녀에게는 "네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 하지만 한 번 더 도전한다면 분명 달라질 수도 있어. 엄마(아빠)는 네 도전을 응원해."라고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양육자의 학령기 시절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아이의 정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도 어릴 때 비슷한 일로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나아졌던 것 같아." 상담용어로 자기 개방성이라고 하는데 내담자의 문제가 자신만 겪는 일이 아니라고 느끼는 장점이 있듯이 우리 자녀에게도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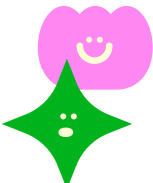
넷째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정적 생각을 줄일 수 있는 양육자의 태도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비교하지 않기, 실패에 대한 반응 줄이기, 일상의 작은 성공 경험 쌓기 등과 같이 형제자매나 친구와 비교하면 오히려 자존감이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아이 자체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패를 특별한 일처럼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기면, 아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님... 아이가 자라는 동안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실패도 성장의 일부"임을 자주 알려주고,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며 노력과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아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다시 도전할 수 있어"라는 자기 신뢰를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글. 정복순

경상남도가족센터 부모코칭전문가

일	월	화	수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사항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사항 지면의 한계로 일부 행사만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공도서관 예약 통합예약 과학교육원 (~8월 13일까지)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 여름방학과강스			
2	3	4	5
	10:00~12:00, 13:30~15:30 / 학생안전 체험원 / 누구나 안전체험교실 <재난>, <교통생활>	10:00~12:00, 13:30~15:30 / 학생안전 체험원 / 누구나 안전체험교실 <재난>, <교통생활>	
9	10	11	12
	(~31일까지/월~금 운영) 10:00 / 김해체험분원 / 자연과 친구되는 유아 생태체험 (~31일까지/월~금 운영) 10:00 / 진주체험분원 / 즐겁고 신나는 과학체험 10:00~12:00, 13:30~15:30 / 학생안전 체험원 / 누구나 안전체험교실 <재난>, <교통생활>	(~12일까지) 09:30 / 경남수학문화관 / 수강스 수학런닝맨 10:00~12:00, 13:30~15:30 / 학생안전 체험원 / 누구나 안전체험교실 <재난>, <교통생활>	15:00 / 3층 가야홀 / 영화 <바닐라 스카이> 10:00~12:00, 13:30~15:30 / 학생안전 체험원 / 누구나 안전체험교실 <재난>, <교통생활>
16	17	18	19
23	24	25	26
15:00 / 3층 가야홀 / 영화 <아기공룡 둘리>			15:00 / 책담 1층 해오름 / 영화 <몬스터 호텔3>
30	31		

목		금		토	
				1	
				● 11:00 / 책담 1층 다온누리(해오름 옆) / 체험 <AR 모래놀이> ● 14:00 / 해담 1층 해2 / 체험 <토요책동산> ● 10:00 / 1층 꿈터 / 책이랑 놀이랑 <도넛 비누 만들기> ● 10:00 / 2층 허왕후실 / [1회차] 3D 커터로 완성하는 가야유물 <웜아트 도어벨>	
6		7		8	
● 14:00 / 3층 가야홀 / 인문강연<새롭게 다시 읽는 러시아 고전 문학(1차)> ● 10:00 / 2층 허왕후실 / [3차]가야 신화 그림책 만들기 ● 10:00~12:00, 13:30~15:30 / 학생안전체험원 / 누구나 안전체험교실 <재난>, <교통생활><교통생활>		● 17:00 / 책담 / 올빼미 별밤 북강스 ● 14:00 / 꿈이룸공작소(김해시 지역서점) / 동네책방, 하루체험 <시나몬 캔들만들기>		● 10:30 / 책담 2층 책고리 / 체험[가상현실(VR)] <스포츠 체험, 자연 힐링 체험> ● 15:00 / 책담 1층 꿈뜨락 / 재능기부 힐링 공연 <여름, 책 그리고 음악> ● 10:00 / 2층 허왕후실 / [2회차] 3D 커터로 완성하는 가야유물 <웜아트 도어벨> ● 11:00 / 3층 가야홀 / 공연 <개미와 번데기> ● 14:00 / 3층 가야홀 / 김겨울 작가와의 만남 ● 15:00 / 1층 세상을봄 / 공연 <셀 위 댄스>	
13		14		15	
● 10:00 / 2층 허왕후실 / 가야사 <가야 신화 그림책 만들기> ● 14:00 / 2층 만장대실 / 5060 신중년 클래스 <캘리그래피 테이블 매트 만들기> ● 14:00 / 3층 가야홀 / 인문강연 <새롭게 다시 읽는 러시아 고전 문학(2차)>					
20		21		22	
● 14:00 / 3층 가야홀 / 강연 <신비의 왕국, 가야를 만나다>				● 10:00 / 책담 2층 책뿔 / VR토론동아리 <VR 포럼> ● 11:00 / 책담 1층 꿈뜨락 / 가족특별공연 <매직 페스티벌> ● 15:00 / 책담 1층 누리홀 / 공연 <댄싱 로봇 공연> ● 10:00 / 1층 꿈터 / 지구를 살리는 도서관 <북극곰 테라리움 만들기> ● 11:00 / 3층 가야홀 / 공연 <영똥박사의 과학마술쇼>	
27		28		29	
				● 14:00 / 꿈담 1층 꿈담홀 / [강연] 김태훈 교수 <AI시대, 인간의 경쟁력과 생각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 ● 15:00 / 책담 1층 꿈뜨락 / 재능기부 힐링 공연 <명곡과 함께하는 세계여행> ● 10:00 / 온라인 / 온라인 가족요리체험 <건강한 장 만들기>	

지구를 살리는 탄소중립 실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 변화 속에서 '탄소중립'은 사회 공동의 생존 과제가 됐다.

경남도 탄소중립 정책의 든든한 가교 구실을 하는
'경상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의 활동과 도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소개한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제로(0)' 인간 활동 때문에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뤄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흡수량**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

고속도로를 달리다 잠시 들른 셀프주유소. 주유기를 잡기 전 무심코 일회용 비닐장갑을 꺼내는 모습은 알다시피 매우 익숙한 풍경이다. 몇 분 동안 사용한 뒤 바로 버려지는 비닐장갑 한 장은 수많은 이용객이 반복하면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된다.

이처럼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비닐장갑 사용 줄이기 캠페인으로 확산시킨 곳은 경상남도탄

소중립지원센터(이하 센터). 비닐장갑을 무조건 없애기보다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면서 다회용 장갑 사용을 유도하는 자율 참여형 실천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센터는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부산경남주유소협의회와 손을 잡고 주유하는 짧은 시간 동안 탄소중립을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도내 일반 주유소도 운영자가 자율 참여할 수 있는 실천 모델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주유소 비닐장갑 줄이기 캠페인

나부터 시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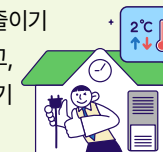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 '녹색 소비'

- 인증마크 확인하기
- 우리 지역 제철 식재료(지역 먹거리) 이용
- 다회용기 리필 문화 동참



가정을 가볍게 하는 '에너지 절약'

- 불필요한 조명 불 끄기
- 전기밥솥 보온 시간 줄이기
- 난방 온도 2°C 낮추고, 냉방 온도 2°C 높이기



탄소를 줄이는 똑똑한 '수송 및 자원순환'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
- 올바른 분리배출(비우기·헹구기·분리하기)
-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



정책과 실천을 잇는 가교, '경상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

주유소의 비닐장갑을 줄이는 아이디어처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책과 도민의 현실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바로 경상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다.

센터는 지자체 예산 사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분석과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 평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개선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규제 강화에 대비해 지역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돕고 환경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경남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해 혜택 챙기세요~!

탄소중립포인트 공식 누리집(cpoint.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집 에너지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카페 텀블러 이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포인트로 쌓이면 매월 또는 연말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생활 실천분야 참여방법 절차



분야	주요 실천 내용	혜택
녹색생활 실천	텀블러 이용(300원/개), 다회용기 이용(500원/회), 전자영수증(10원/건) 등 17개 분야	매월, 최대 7만 원 현금 또는 참여기업 포인트 등
에너지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5% 이상 절감	연 2회, 최대 10만 원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
자동차	기존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 감축 (비사업용 승용·승합) * 매년 2~3월경 참여 가능	연 1회, 최대 10만 원 현금

* 에너지·자동차분야 참여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 바로가기

7월 호 예고편 영상 댓글 이벤트

7월

여러분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공통의 매개체는 무엇인가요?

주철홍

가족들과 함께 걷기대회에
참여를 하며 서로 응원해주고
완주를 통해 가족화목을 올리고 있어요.

정민욱

영화감상을 하면서 감상평후기를 이야기하며
웃고 즐기며 가족의 정을 돈독히 다지고 있어요.

이승우

어머니 같아요.
중간에서 든든하게 누구 하나 차별 없이 잘하시는것 같아요.
(아버지는 막내 아들만 생각 하셔서 저포함,누나,여동생은
많이 섭섭해 하는데 어머니 께서 중간에서 잘하세요.)
저도 50이 넘었지만 나이 들수록 어머니를 닮고 싶어요.

정아영

추억을 채우는 우당탕탕 요리 시간이 아닐까요?
저는 친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주말 오후가 되면 조리법을
이리저리 헤매며 부엌을 엉망으로 만드는 요리 도전에 나서곤 합니다.
그 과정은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유쾌한 시간이지요.
서투른 솜씨로 완성된 개성 가득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우리는 완벽한 요리보다 함께 부대끼며 쌓아
올린 웃음과 추억을 더 진하게 맛보게 됩니다.

박태진

함께 요리하는 시간입니다.
주말이면 간단한 음식이라도 같이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고,
과정 자체가 즐거운 추억이 됩니다.

매달 소식지 예고편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른쪽의 큐알코드를 통해 예고편 영상을 시청한 후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문화상품권을 증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월 호
예고편 영상



2026년 8월 호

독자퀴즈



경남교육 8월 호를 집중해서 읽은 독자들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 [요즘, 아이]** 양산 물금고 3학년 수환 학생이 수능이 끝난 뒤
가장 하고 싶다고 꼽은 소소한 일탈은 무엇일까요?
① 친구들과 여행 가기
② 좋아하는 게임 실컷 하기
③ 넷플릭스 정주행하기
④ 아르바이트로 직접 돈 벌어보기
- [요즘, 학교]**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교정 한편에 자리하여
장애 학생들의 따뜻한 자립을 돕고,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현대적인 실습 공간에서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우게 하는
이곳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① 자립형 창업지원 거점센터 ② 맞춤형 특수교육 실습학교
③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④ 생명과학 진로체험 지원센터
- [경남교육 기네스]** 1998년 신입생부터 획일성을
탈피하고자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혀 전국 최초로 '
생활한복'을 교복으로 지정해 등교를 시작한 학교는
어디일까요? (단답형)
- [요즘, 교육]** 부곡초등학교 학포분교장 이도현 선생님이
이끄는 발명 동아리로, 아이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 동아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답형)

8월 호 독자퀴즈 정답자는 9월 호에 발표됩니다.

7월 독자퀴즈 정답과 당첨자

- 7월 호 정답 1. ② 이음급식 2. ③ 한라장사
3. 청명 4. 가야의 서재
- 7월 호 당첨자 창원 남양초등학교 양미량 학부모 / 거창교육지원청 허진영 교직원

독자퀴즈 정답 보내실 곳

QR코드를 통해 정답과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을
기재해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제출 기한 2026년 8월 17일까지
- 제출방법 QR코드를 통해 답안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 문의 055-278-1788

* 유의사항 :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 정보가 누락될 경우 정답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답안작성 QR코드



경남교육 소식을 다양하게 즐겨요!

경남교육 웹진에서 생생한 학교 현장의 이야기와 깊이 있는 교육 정책을 만나보세요.
경남교육 SNS를 팔로우 하시면 주요 소식과 행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6 경남독서한마당 • 독서공모전

공모기간 2026. 8. 11.(화) ~ 9. 30.(수)

공모부문 글 · 그림 · 영상

공모대상 경남 도내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생,
청소년 및 경남 도민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 제출
(단, 영상부분 전자우편)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스캔

주최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주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협력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